

##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오 상 학\*\*

### The Recognition of Leodo Waters Represented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Old Maps\*

Sang-Hak Oh\*\*

**요약 :** 한국의 고지도 가운데 세계지도와 동아시아 지도, 일부의 제주도 지도에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바다 명칭이 붙여져 있지는 않으나 일부 문현에서는 '백해(白海)'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지리지식에 기반한 것이 많았으나 조선전기 『해동제국기』의 지도나 조선후기 『해동삼국도』 등의 지도에서는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이어도 해역을 표현한 것도 있다. 중국의 경우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전통적인 지도에서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서양선교사의 세계지도가 제작되면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은 점차 정교해졌다. 16세기 이전의 일본지도에서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서양의 지리지식이 유입되고 유구와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제작된 18세기 이후의 지도에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풍부해졌다.

주요어 : 이어도 해역, 고지도, 백해, 유구, 지리 지식

**Abstract :** The recognition of Leodo waters can be found in world maps and East Asia maps, specially in maps of Jeju Island during Joseon dynasty. There is no place name of Leodo waters in the maps of Joseon dynasty. Some cases that called 'Baekhae(white sea)' are found in the literature. Most of recognition of Leodo waters was based on the geographical thoughts from China, but some of that on the newest information for example, map of Haedongjiegukgi and Haedongsamgukdo. The recognition of Leodo waters in Chinese traditional maps based on Sinocentrism was not noticeable. After map making of Christian missionary it gradually became elaborate. The recognition of Leodo waters in Japanese maps before 16th century was also vague, but after 18th century became more accurate owing to induction of western geographical thoughts and interchange with Ryukyu.

Key Words : Leodo waters, old maps, Baekhae(White Sea), Ryukyu, Geographical thoughts

### I. 서 론

지도는 대표적인 그래픽 언어이다. 특히 과거에 그려진 고지도는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며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된다. 단순히 지리적 실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넘어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살았던 인간들의 신념과 가치체계, 더 나아가 주변 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도 아스라이 스며있다. 이처럼

고지도는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 속에서 탄생되며 지역간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오상학, 2005).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도를 제작하여 사용해 왔다. 자신의 영토를 그린 지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넘는 이역을 그린 지도들도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이러한 지도들은 특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정지역

\* 이 논문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정책중점연구소 지정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hsanghak@jeju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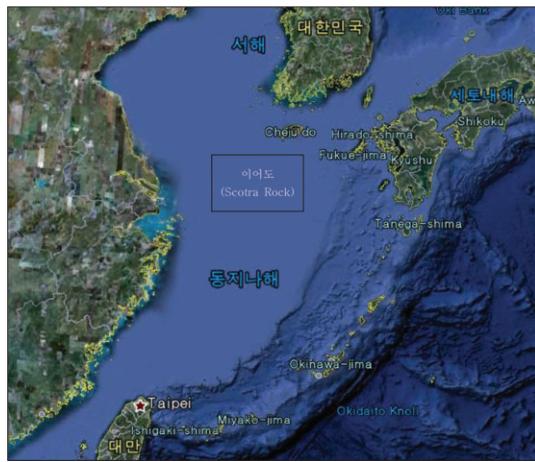


그림 1. 이어도 해역의 위성사진

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영토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이어도는 한국, 중국, 일본과 접하는 해역에 위치해 있다(그림 1).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정밀한 측량지도가 제작되기 이전의 전통시대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전통시대 지도에서 해상에 드러나지 않는 암초를 표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어도 자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에 대한 인식을 고지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고찰하여 동양 삼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도 문제 역시 독도라는 고립된 섬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해역과 관련지어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독도의 주변 해역 더 나아가 동해라는 바다의 인식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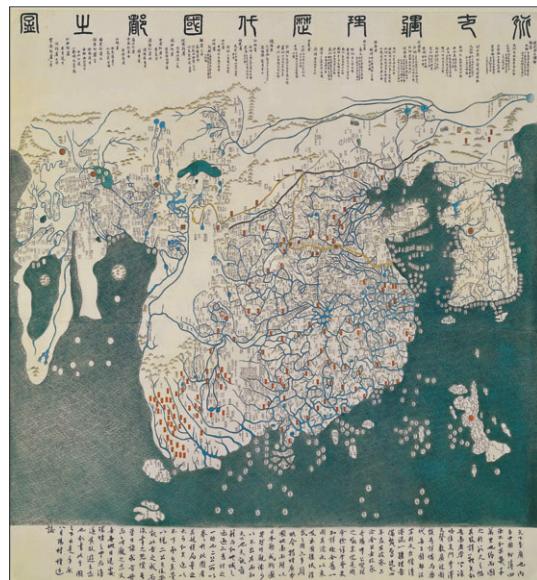


그림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II. 한국의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 1. 조선전기 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우리나라는 조선전기부터 지도제작이 활발하게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존하는 지도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이어도 해역의 인식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세계지도와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지도 정도이다. 여기서는 이를 지도들을 중심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것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긴 이름을 지닌 지도이다(그림 2). 1402년(태종2)에 중국에서 수입한 지도와 일본사신을 통해 입수한 일본지도, 그리고 조선의 지도를 합쳐 편집·제작한 것이다. 이 지도를 보면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지역까지도 그려져 있어서 당시 제작된 지도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미 고려시대 축적된 활발한 대외 교류와 이 시기 형성되는 대외 관계의 개방적 태도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는데, 이



그림 3.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인촌기념관 소장)

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도로 평가된다(오상학, 2001).

지도에는 가운데에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동쪽에 조선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표현되어 있다. 서쪽에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이 그려져 있다. 바다는 규칙적인 파도 무늬와 함께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에는 바다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에서 일본의 큐슈, 그리고 지금의 오키나와에 해당하는 유구국이 그려져 있다. 지금의 대만에 해당하는 소유구(小琉球)가 유구국의 서북쪽에 있어 위치상의 오류도 보인다. 중국측 해안에는 대서(岱嶼) 등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16세기의 대표적인 세계지도인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그림 3)는 1402년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비해 그려진 영역이 축소되어 있다. 조선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서쪽의 유럽과 아프리카가 지도에서 제외되었고 전통적으로 중국과 주변의 조공국으로 이루어진 직방세계로 한정되어 표현되었다. 지도에는 중국, 조선이 크게 그려져 있으나 일본은 작은 섬으로 처리하고 삼각형 안에 일본이라는 글자를 표기했다. 이어도 해역에는 양쯔강 하구



그림 4. 「해동제국총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에 있는 삼각주인 승명도(崇明島)가 크게 부각되어 그려져 있는데 위치상의 오류가 보인다. 승명도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양쯔강의 문호에 해당하며 중국동해의 영주(瀛洲)로 불렸다. 중국 영파의 앞 바다에 있는 주산(舟山) 군도의 군사가지인 정해(定海)가 직사각형 속에 표시되어 있다. 이곳은 제주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남방해로의 종착지점으로 해상교류의 중심지에 해당한다(윤명철, 2002). 제주와 중국 사이의 바다에 지명이 없는 일부 섬들이 그려져 있다.

조선전기 이어도 해역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표현된 것은 1471년 신숙주가 간행한 『해동제국기』에서 볼 수 있다. 조선은 북으로는 중국과 여진, 남으로는 일본과 유구 등의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였다. 특히 일본, 유구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했는데, 바닷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해동제국기』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후 일본, 유구 등의 대외교류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해동제국총도」는 일본, 유구국에 이르는 해상의 정보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그림 4).

지도에는 특히 일본과 유구 왕국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일본의 모습은 전통적인 행기도(行基圖)와 유사하지만 대마도와 이끼섬 등은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오상학, 2003). 특히 행기도 계열의 지도에 보이는 도로의 표시가 없고,

대신에 해로의 이정(里程)이 상세하다. 일본의 국도에 이르는 해로와 유구국의 국도에 이르는 해로의 이정이 이수(里數)의 표기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행기도 계열을 따르면서도 조선의 현실적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해상을 통한 일본과 유구와의 교류 관계가 지도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어도 해역에도 섬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그 위치나 배열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 유구에 이르는 활발한 해상 왕래의 결과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어도 해역에 그려진 섬들로는 오도(五島)열도, 지금의 우치군도(宇治群島)에 해당하는 우지도(宇持島), 지금의 초원도(草垣島)에 해당하는 초장도(草牆島), 흑도(黑島), 구도(口島), 중도(中島), 악석도(惡石島), 율국도(栗國島)에 해당하는 율도(栗島), 이시명도(伊是名島)에 해당하는 이시나(伊是那), 구미도(久米島)에 해당하는 구미도(九米島)가 한자를 달리하여 표기되어 있고, 와사도(臥蛇島, 가자시마), 소와사도(小臥蛇島) 등 이어도 해역의 동쪽 지역에 있는 무인도도 그려져 있다. 현재의 실제 지명과 큰 차이가 없는데, 유구국과의 해상 교류로 인해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조선후기 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이어도 해역이 좀 더 다양하게 표현된다. 16세기의 『Honil Yeakdae Guido Gangri Jido』와 같은 직방세계를 표현한 전통적인 세계지도는 17세기 이후에도 세계지도의 주류로서 계속 제작되었다. 17세기에는 김수홍이 『천하고금대총편람도』(그림 5)라는 세계지도를 민간에서 제작하기도 했다. 지도를 보면 중국에서 제작되는 전통적인 세계지도처럼 중국을 방형의 모습으로 크게 과장되어 표현하였고 조선 부분에는 한반도의 윤곽을 그리지 않고 조선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을 수록했다. 이어도의 해역에는 제주도의 모습도 그려져 있지 않고 중국 남쪽 해안으로 유구국, 소유구, 남만국 정도의 정보만이 소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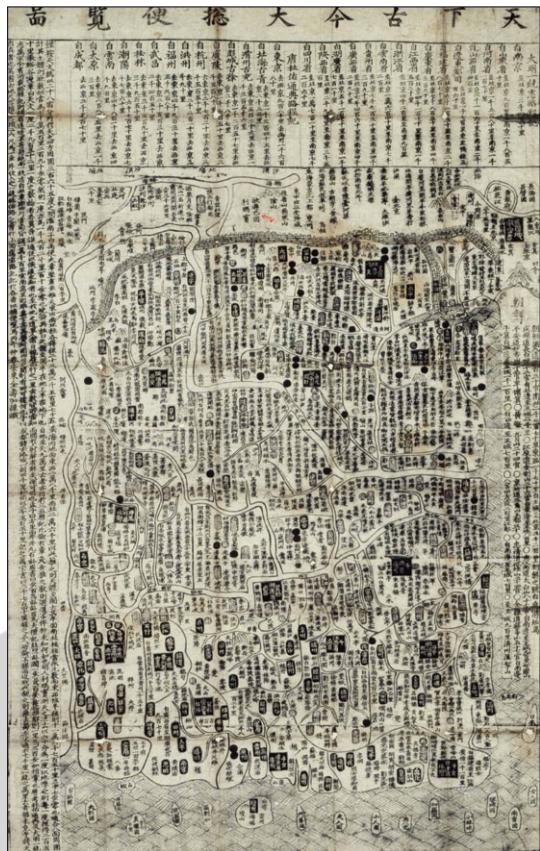


그림 5.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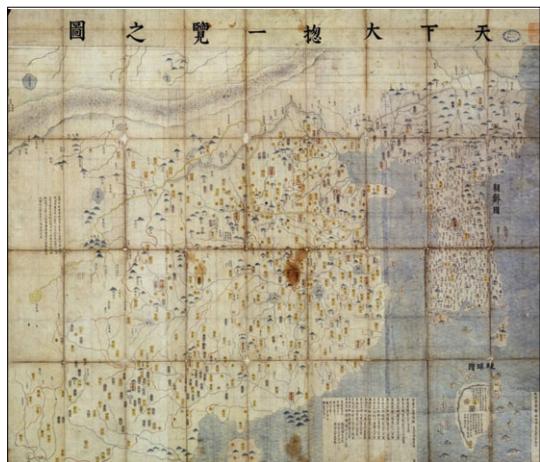


그림 6. 천하대총일람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통적인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는 18세기에도 계속 제작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천하대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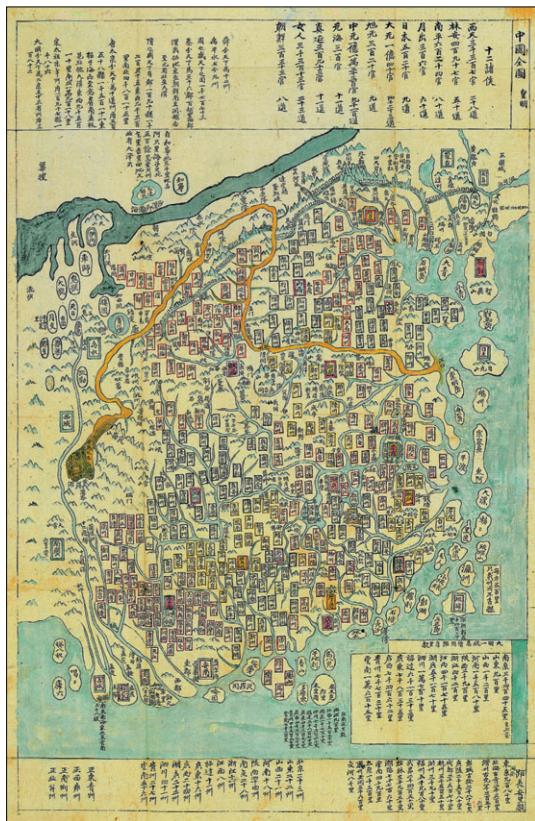


그림 7. 중국전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람지도(그림 6)를 들 수 있다. 이 지도에도 중국과 조선이 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아예 그려져 있지 않고 이어도 해역에는 유구국이 그려져 있다. 유구국은 조선전기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유구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지도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직방세계를 표현한 전통적인 세계지도이면서 이전의 지도와 약간 다른 지도가 역사박물관 소장의 『중국전도』(그림 7)이다.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지만 수록된 내용은 중국 명대의 상황이다(대한지리학회·국토지리정보원, 2000, 92-93). 중국을 중심에 크게 그리고, 주변에 조공국을 배치시킨 구도는 앞서 본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어도 해역을 보면 먼저 제주도가 누락되어 있다. 황해에는 대청도와 소청도가 과장되게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지도를 기초로 그리다 보니 당시 조선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형태로 표현된 것에 기인한다. 중국 양쯔강 하구의 송명도와 영파부의 주산도가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그 남쪽에는 유구국과 지금의 대만에 해당하는 소유구가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영주(瀛洲)와 모인국(毛人國) 등과 같은 가상의 나라가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세계지도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전통적인 천지관(天地觀)을 바탕으로 제작되지만 중국에 온 서양선교사가 만든 서구식 세계지도는 지구는 둥글다는 지구설(地球說)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 알레니의 『만국전도』 등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대표적인 서구식 세계지도로 조선의 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러한 세계지도에는 ‘대항해시대’에 발견된 신대륙과 더불어 당시 조선의 지식인에게 생소한 미지의 바다가 표현되어 있다.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그림 8)는 알레니의 『만국전도』를 기초로 18세기 말에 조선에서 다시 제작된 것이다. 지도를 보면 남쪽에는 커다란 남방대륙이 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알레니의 『만국전도』가 오세아니아 대륙이 탐험되기 이전의 세계지도를 기초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는 다양한 바다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의 태평양에는 ‘태평해(太平海)’와 ‘대동양(大東洋)’, ‘소동양(小東洋)’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의 명칭이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동해에는 ‘소동해(小東海)’, 황해와 이어도 해역에 해당하는 바다에는 ‘소서해(小西海)’ 등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바다 이름이 붙여져 있다.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 지금의 동지나해에 표기되어 있던 ‘대명해(大明海)’는 일본 남쪽 필리핀 동쪽 해역에 붙여져 있다. 바다 이름을 조선을 기준으로 명명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서구식 세계지도를 통한 서양 지리지식의 유입은 전통적인 세계지도 제작에도 변화를 몰고 왔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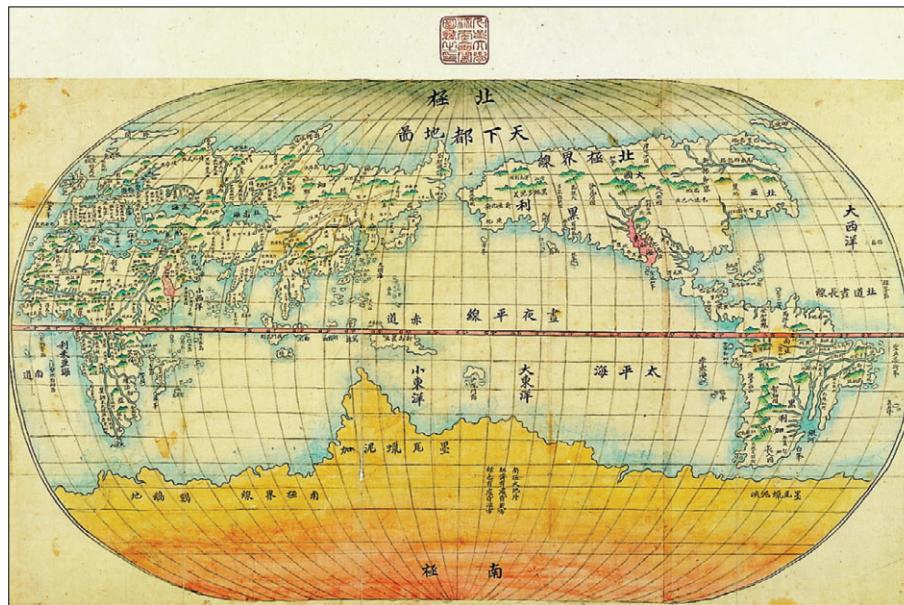


그림 8. 천하도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9. 천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 대표적인 것이 원형 천하도의 출현이다. 원형의 천하도(그림 9)는 서양 지리지식의 유입으로 형성된 넓은 세계 인식을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 방식과 내용은 전통에 의존하였다. 중국 고대의 신화지리서인 『산해경』을 기초 자료로 삼아 내대륙·내해·외대륙·외해의 구조를 만들고 지명을 각각의 위치에 배치하였다. 이외에 사서(史書)에서 보이는 실제 지명을 내대륙에 배치하고 신선 사상과 관련된 지명도 상당수 기입하였던 것이다(오상학, 2001a).



그림 10. 『해동삼국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도의 이어도 해역에는 바다 명칭이 없고 섬들도 거의 그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일본과 유구국 사이에 영주, 봉래, 방장 등의 삼신산이 그려져 있다. 실재하는 객관적 세계와 관념적인 상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상을 통한 주변국과의 교류는 조선후기에도 이어졌는데, 실학이 부흥하는 18세기에는 『해동삼국도(海東三國圖)』(그림 10)라는 정교한 동아시아 지도가 제작되었다.<sup>2)</sup> 지도의 표지에는 「일본조선유구전

도(日本朝鮮琉球全圖)」라 되어 있고,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의 만주 지역과 북경, 동부 연해지역, 대만의 서쪽 해안, 유구, 일본 등이 그려져 있다. 세로 248cm 가로 264cm의 대형 지도로 조선의 한양에서 사방 각지에 이르는 육로와 해로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지도의 하단에는 일본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도별 각 주의 명칭과 주에 소속된 각 군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끝 부분에 살마주(薩摩州)에서 절 강성(浙江省)까지, 대마도에서 부산포까지의 거리와 항해 일수, 그리고 살마주에서 유구, 대만, 안남(安南), 여송국(呂宋國)에 이르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은 조선시대 제작된 지도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표현되었다고 평가된다. 백리척을 사용하여 위치와 거리, 방위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유구국이었던 지금의 오키나와 열도도 『해동제국기』의 지도에 비해 훨씬 정확해지고 실재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동남쪽에는 대만도 그려져 있는데, 중국 본토와 접촉이 빈번한 동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이어도 해역의 표현은 중국과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19세기에 제작된 세계지도 가운데 서양의 지리지식을 반영하면서도 조선에 변용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지도가 『여지전도』(그림 11)이다. 목판본 『여지전도』의 규격은 세로 85cm, 가로 60cm 정도이다. 지도의 상단에는 「여지전도(輿墜全圖)」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地)’ 자가 고자(古字)인 ‘지(墜)’로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오세아니아 대륙이 그려져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빠져 있다. 서양의 많은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의 윤곽도 비교적 잘 그려져 있다(오상학, 2001b).

『여지전도』의 이어도 해역을 보면 제주도, 유구국이 그려져 있고, 양쯔강 하구의 승명도, 중국의 영파가 섬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금의 황해를 발해(渤海), 동해의 북쪽을 슬해(瑟海)라고 표기했다. 유구국의 동쪽에는 소유구가 그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만을 소유구로 불러왔으나 여기서는 대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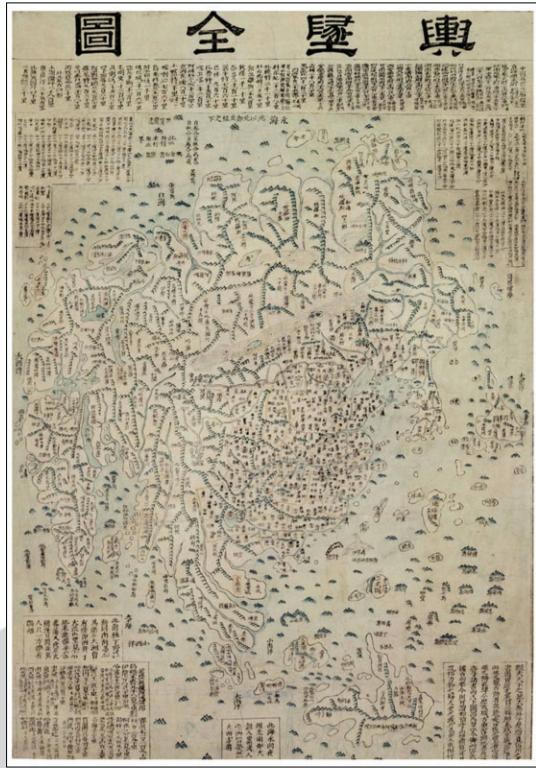


그림 11. 여지전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다른 섬으로 그려져 있다. 지금 대만 남쪽에 있는 소유구(小琉球, 리우치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어도 해역, 즉 제주와 중국 영파 사이에 있는 바다에 암초와 같은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이어도를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해역에 다른 섬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어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한국의 고지도 중에서 이어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여지전도』가 대표적이라 생각된다.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일본이나 서양 제국으로부터 새로운 지리정보가 유입되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게 된다. 이러한 지리정보는 세계지리 교과서에 수록되게 되는데 1889년에 간행된 헬버트의 『사민필지』가 대표적이다. 당시 육영공원 교사였던 선교사 헬버트는 세계지리를 가르치기 위해 한글로 『사민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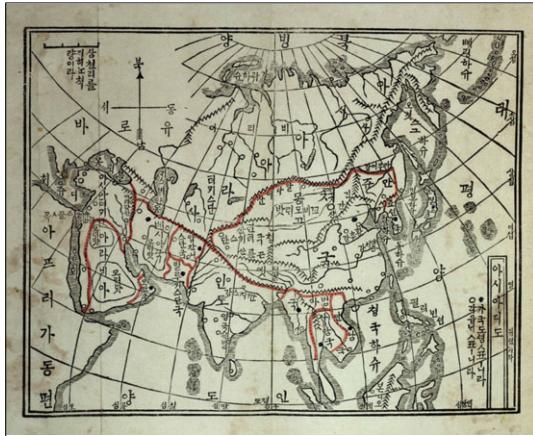


그림 12. 사민필지의 아시아지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지』를 간행했다(남상준, 1988). 여기에는 아시아지도(그림 12)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지도에는 지명이 한자가 아닌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 아시아 각국의 나라 이름과 더불어 해양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동남쪽 방향으로 태평양을 배치시켰고, 남쪽에 인도양이 표기되어 있다. 『곤여만국전도』나 『곤여전도』와 같은 서양 선교사의 서구식 세계지도와는 달리 동남아 지역에 ‘청국하슈’가 표시되어 있다. 동해는 ‘일본하슈’로 표기되어 있고 서해는 ‘황하슈’로 표기되었다. 이어도 해역은 ‘동하슈’로 표기하여 조선의 전통적인 바다 인식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자리지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3. 제주도 지도와 문헌 자료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은 세계지도나 동아시아지도 외에도 제주도 지도에서도 일부 표현된다.<sup>3)</sup> 이의 대표적인 것은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그림 13)로 제주도의 모습을 채색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지도이다. 제주의 한라산과 하천, 중산간의 오름을 비롯하여 마을, 포구, 군사기지, 봉수, 연대, 목마장 등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바다와 관련하여 이 지도의 특징은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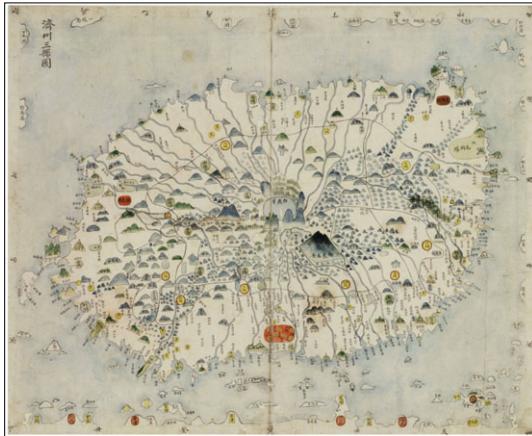


그림 13.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소장)

를 중앙에 놓고 주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의 외곽에 24방위를 표시하고 바다 건너 각 방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려 넣었다. 한반도의 육지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그려져 있다. 주변 지역에 이르는 방위선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서양의 포르틀란도 해도를 연상케 한다. 유구국도 유구국과 소유구를 구분하여 그렸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지역을 방위에 따라 배치한 것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지식은 과거 제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축적되기도 했고, 조선시대에는 중국·동남아 등지에 표류하면서 얻어진 지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부의 『표해록』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과 지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너희는 키를 잡고 배를 똑바로 가누되 방향을 몰라서는 안 된다. 내가 일찍이 지도를 보니,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충청, 황해도이고 정북쪽으로 가면 평안도나 중국의 요동 등지고 서북쪽으로 가면 《서경》의 ‘우공(禹貢)’ 편에 나오는 중국의 청주(青州), 연주(兗州) 지역이고, 정서쪽으로 가면 중국의 서주, 양주 지역이다. 송나라가 고려와 교통할 때 명주(明州)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였는데, 명주는 양자강 남쪽 지방이다. 그리고 서남쪽은 옛 날의 민(閔) 땅, 곧 지금의 복건 지방이고 서남쪽으

로 향하다가 좀 남쪽으로 치우치면 섬라(暹羅, 타이), 점성(占城, 지금의 베트남 남부), 만랄가(滿刺加, 말레이반도 서남쪽 말레이)가 되고 동남쪽은 대유구국(大琉球國)과 소유구국(小琉球國)이고 정남쪽은 여인국(女人國)과 일기도(一岐島)이고 정동쪽은 일본 대마도다. 지금 표류하여 다섯 낮밤 동안 서쪽으로만 왔기에 거의 중국 땅에 닿을 줄로 생각하였더니 불행히도 또 서북풍을 만나서 동남쪽으로 거슬러 떠가고 있으니 만일에 유구국이나 여인국에 닿지 않으면 반드시 끝없는 바다 밖으로 표류하여 나갈 것이다. 그리되면 장차 어찌한단 말이냐? 너희는 내 말을 명심하여 키를 똑바로 잡고 가야 한다.”<sup>4)</sup>

위 인용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제주삼현도』의 모습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이러한 정보가 수록된 것은 제주도가 지니는 지정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단순히 한반도의 변방이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였고 동아시아 해양 교류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한 파악이 중시되었고 이것이 지도에도 표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에는 또 하나의 「제주삼현도」(그림 14)가 있는데, 제주도의 윤곽이 왜곡이 심하고 수록된 내용도 문화적 특성이 많이 반영된 지도이다. 이 지도에도 지도의 외곽에 간지로 된 28방위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서 서쪽과 남쪽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의 등래주(登萊州), 항주(杭州), 소주(蘇州), 영파부, 만랄가(滿刺加), 점성, 섬라, 안남, 유구국과 더불어 대만까지도 그려져 있다. 지금의 이어도 해역에 해당하는 곳에는 전횡도(田橫島), 갈석(碣石), 마도(麻島) 등의 섬이 그려져 있고, 송악산 서남쪽에는 암초 모양의 봉우리가 천왕봉(天王峰)이라는 지명과 함께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거리와 방향이 정확한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지역도 실제의 거리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전횡도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 있는 섬으로 제나라의 전횡이 부하 500명과 자결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갈석은 신선이 거주한다는 산으로 산동성 해안에 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지명과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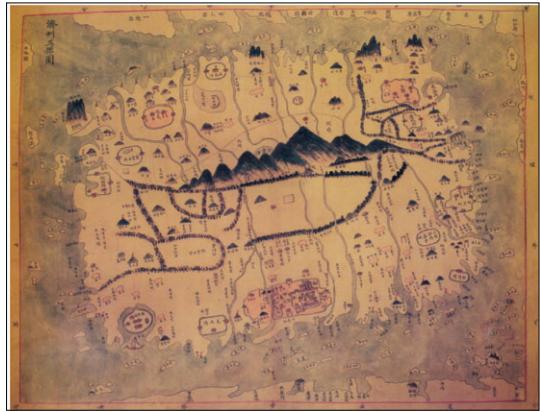


그림 14.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소장)

주목되는 것이 천왕봉이다. 이어도 해역에 속해 있으며 산방산 앞의 형제도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섬과도 다르다. 형태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어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천왕봉이라는 지명에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의 인식과 더불어 문헌 자료에서도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부의 『표해록』과 이형상의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이다.

제주 서남쪽에 백해(白海)가 있다는 말도 흥미롭다. 지금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물결은 용솟음치고 바다 빛은 희다. 예전에 정의 현감 채윤혜(蔡允惠)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제주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맑게 갠 날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면 멀리 서남쪽으로 아득히 떨어진 바다 밖에 백사장 같은 것이 보인답니다.” 지금 보니 한라산에서 보인다면 그것인가 싶은데 이는 백사장이 아니고 백해(白海)다. 나는 권산 등에게 말하기를, “고려 때 너희 제주가 원에 조공할 때 명월포에서 순풍을 만나 직항으로 7일만에 백해를 지나 대양을 건넜는데, 지금 우리가 표류하는 길이 직항로인지 옆길인지 알 수가 없다. 다행히 백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 분명히 중국의 경계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했다.<sup>5)</sup>

낭중 등이 지도를 가리키며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느 곳에서 출발하여 어디에서 머물렀소?” 하

였다. 나는 손으로 그 표류한 지역과 지나온 바다, 머물렀던 해안을 가리키니 해로가 바로 대유구국(大琉球國)의 북쪽을 경유하게 되었다. 대낭중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구의 땅을 보았소”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표류하여서 백해(白海)로 들어가 서북풍을 만나 남하하였을 때 산 모양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 또 인가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유구의 땅인 것 같으나 정확히 알 수 없소”라고 하였다.<sup>6)</sup>

서쪽 하늘 닿는 끝을 바라보니 백색 사정(沙汀)같은 것이 있는데, 곧 표해록에 백해(白海)라고 칭한 곳이다. 향양(向讓)의 눈으로써 만되의 바닷길을 능히 바라볼 수 있었음은 그 또한 다행한 일이다. 곁에 늙은 아전이 있었는데, 일찍이 월남까지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과해일기(過海日記)’를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향하여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저것이 마도(馬島)입니다. 강호(江戶)입니다. 옥구도(玉球島)입니다. 여인국(女人國)입니다. 유구국(琉球國)입니다. 안남국(安南國)입니다. 섬라국(暹羅國)입니다. 점성(占城)입니다. 만라가(萬刺加)입니다. 영파부(寧波府)입니다. 소항주(蘇杭州)입니다. 양주(楊州)입니다. 산동(山東)입니다. 청주(青州)입니다.”라고 하였다. 역력히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황홀하고 아찔하여 눈이 어지럽고 마음이 현란하였다. 다만 하늘은 덮개가 되고 물은 땅이 되어 내 다리 아래에서 위아래 입술처럼 합쳐진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sup>7)</sup>

이상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이어도 해역은 ‘백해(白海)’라는 바다로 불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서남쪽으로 보이는 백해라는 바다는 지금의 이어도 해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백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백사정처럼 보여서일 수도 있지만 이어도 해역에 파도가 빈번하게 치면서 나오는 하얀 포말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의 이어도 해상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고대로부터 제주는 동북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해상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의 주요 항로인 동중국해 사단항로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윤명철, 2002). 중국 절강 지방의

영파나 주산군도를 출발하여 동중국해를 동북 방향으로 사단한 다음 제주도를 경유하거나 기항하여 일본방면이나 한반도의 각 지역으로 항해하는 항로로 위의 최부의 연술에서도 7일만에 중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항로가 예로부터 사람과 물자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탁라·화탈(火脫)·여서(餘鼠) 사이에는 바다가 깊고 검푸르며 매서운 바람과 높은 파도가 많다. 매양 봄과 여름에 남쪽 수종(水宗) 밖을 바라보면 높은 둑을 단 큰 선박들이 무수히 지나간다. 여기는 흑치(黑齒)의 오랑캐들이 중국과 통상하는 길목이며 또한 해외 여러 만이(蠻夷)들의 물화가 유통되는 곳이다. 서남쪽으로는 백해(白海)와 마주하고 있는데 최부(崔溥)가 바다에서 표류(漂流)하다 동풍을 타고 7일 만에 백해에 도착하였다 한다. 그 밖으로 대유구(大琉球)가 있다.<sup>8)</sup>

### III. 중국의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 1. 17세기 이전 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중국 고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는 석각화이도(石刻華夷圖)(그림 15)이다. 1137년(阜昌 7)에 서안(西安) 비림(碑林)에서 석각된 지도로 당대 가탐(賈耽)의 지도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만이(蠻夷)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가탐의 지도에서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를 반도의 형태로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다. 고려, 백제, 신라, 옥저의 국명이 표기되어 있고 연혁과 관련된 주기가 기재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은 ‘東(동)’이라는 방위표시만 되어 있고 다른 섬이나 국가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의 초기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표현은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반영한 세계지도 이외에도 불교식 세계관을 표현한 지도에서도 볼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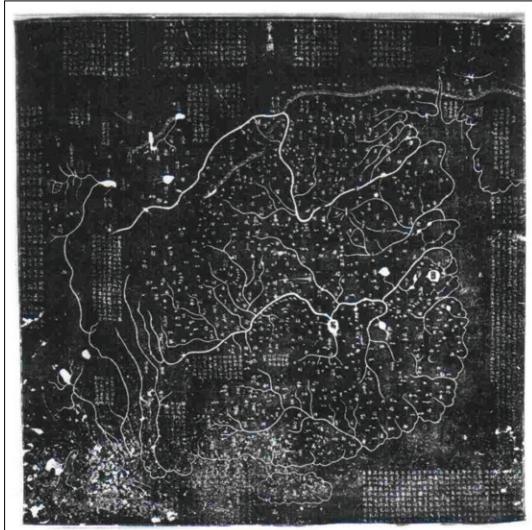


그림 15. 중국의 석각화이도(서안 비림박물관 소장)



그림 17. 도서편의 사해화이총도



그림 16. 법계안립도 소재의 남섬부주도

섬부주도』(그림 16)와『사해화이총도』(그림 17)이다.

『남섬부주도』는 명대의 인조(仁潮)가 1607년 간행한『법계안립도(法界安立圖)』에 수록된 것인데, 현장의『대당서역기』에 기초한 지명들이 기재되어 있다. 대륙의 중앙에 아누달지(阿耨達池)와 여기서 흘러나가는 네 개의 하천이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海野一隆, 1996, 21). 이 지도에서 중국은 동쪽 구석

에 치우쳐 있고, 한반도는 섬으로 그려져 ‘고려(高麗)’라 표기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어도 해역에는 몇 개의 섬나라가 그려져 있는데, 삼한(三韓), 왜국(倭國), 유구(琉球) 등의 나라가 전부이다. 이전 시기 존재했던 삼한이 그려진 점이 특이하다.

『남섬부주도』와 더불어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지도가『사해화이총도』(그림 17)이다.『사해화이총도』는 1613년 간행된 명대의『도서편』에 수록된 지도로『산해여지전도』와 같은 서구식 세계지도와 같이 실려 있다. 이 지도는『삼장(三藏)』,『불조통기』에 수록된『진단도(震旦圖)』와『한서역제국도(漢西域諸國圖)』,『반사서토오인도(盤師西土五印圖)』의 세 지도를 합하여 제작한 것인데, 지명은 여러 승려의 서역전(西域傳), 홍범(洪範) 등의 책을 참고하여 표기하였다.<sup>9)</sup>

지도는『남섬부주도』처럼 인도를 중심으로 그려져 중국이 동북쪽에 치우쳐 있다. 이어도 해역은 남섬부주도보다 진전된 인식을 보여준다. 조선은 섬이 아닌 반도로 표현되어 있고 이어도 해역의 지명이 ‘동해’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국이 동쪽에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왜(倭)’가 그려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활약하던 왜구의 영향으로 일본과 별도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남쪽으로 대유구와 소유구가 그려져 있다.

중국 명대를 대표하는 지도로『대명일통지도(大明一統之圖)』(그림 18)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중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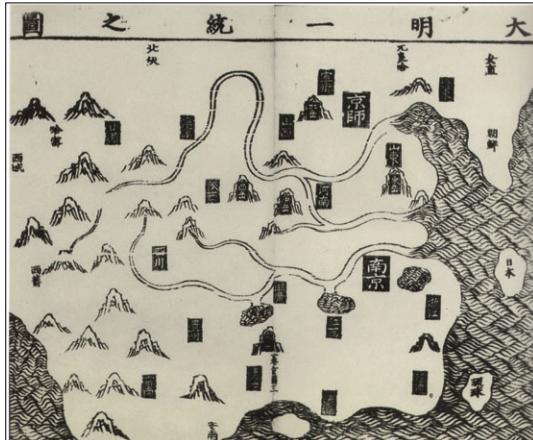


그림 18. 대명일통지의 대명일통지도



그림 19. 대명혼일도(북경 중국 제1역사 아카이브 소장)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린 소략한 형태의 중국 지도로 『대명일통지』에 수록된 부도이다. 명대의 행정구역인 13省과 북경과 남경이 주요 지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반도는 남쪽이 뾰족한 반도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조선이라는 국명이 표기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을 보면 일본이 동쪽에 그려져 있고 남쪽으로 유구가 그려져 있다. 동남아시아의 안남국 더 수록된 정도이다.

이어도 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된 지도로는 『대명혼일도』(그림 19)를 들 수 있다. 『대명혼일도(大明混一圖)』는 작자 미상의 세계지도로 조선, 일본을 제외하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이 지도도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인도 반도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윤곽을 지니고 있다. 최근 중국측의 보다 자세한 연구에서는 지도상의 ‘광원현(廣元縣)’과 ‘용주(龍州)’ 등의 지명을 토대로 볼 때, 1389년(홍무22) 139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汪前進·胡啓松·劉若芳, 1994, 52).

『대명혼일도』는 동쪽으로 일본, 서로는 유럽, 남으로는 자바, 북으로는 몽골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계선은 없고 단지 지명이 표기된 사각형의 색깔로 구분하였다. 지도에는 명대의 산천과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이어도 해역을 보면 일본이 다른 지도와 달리 크게 그려져



그림 20. 양자기의 여지도(旅順博物館 소장)

있다. 그 아래쪽에 유구국 등의 나라와 몇몇 섬들이 그려져 있다.

양자기(楊子器)의 여지도(그림 20)에서도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중국 대련시(大連市) 여순박물관(旅順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로 가로 164, 세로 180cm의 규격으로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지명을 토대로 볼 때 양자기의 말년인 1512-151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조선에도 바로 수입되어 상세한 조선전도를 첨가하여 다시 편집, 제작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처리되어



그림 21. 광여도의 동남해이도 사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있다. 뭉툭한 반도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압록강에 의해 만주 지역과 분리되고 있다. 만리장성이 끝나는 지점에 백두산인 장백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동쪽에는 ‘여진(女眞)’이라는 국명이 표기되어 있다. 반도의 남쪽에는 붉은 색 역삼각형 안에 ‘조선(朝鮮)’이라는 국명이 표기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은 비교적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다. 바다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원 안에 일본, 유구 등의 나라가 표시되어 있다. 중국의 해안가에는 송명도를 강조해서 표현하였다.

이어도 해역이 가장 상세하게 묘사되는 것은 나홍선(羅洪先)의 『광여도(廣輿圖)』에서 볼 수 있다. 『광여도』는 1555년(嘉靖 34)에 제작된 중국 최고(最古)의 세계지도 아틀라스이다. 주사본(朱思本)의 여지도를 참고하고 이택민도(李澤民圖)의 동해남해 부분을 취했다. 여기에 수록된 「東南海夷圖」(그림 21)가 그것인데 수록된 정보량도 이전 시기의 지도보다 훨씬 많다.

지도에는 조선이 반도로 그려져 있고 삼한, 신라, 부여 등 이전 시기의 나라가 섬으로 표현되어 있다. 탐라가 한반도의 남쪽에 그려져 있고, 남쪽으로 일본, 소유구, 대유구의 나라가 표현되어 있다. 동쪽에는 영주와 부상 등의 삼신산과 모인국과 같은 상상의 나라가 그려져 실재와 가상이 혼재된 느낌을 준다. 이어도 해역에는 진도, 백산도, 흑산도, 군산도 등 중국과

의 해상교역을 할 때 중요한 경유지가 그려져 있다. 이들 전라도 근해에 있는 섬들은 고려시대 송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경유지였다.<sup>10)</sup> 이러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은 원대에 제작된 세계지도에서 취한 것으로 명대의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2. 17세기 이후 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중국 고지도에서 이어도 해역 인식의 새로운 변화는 서양 선교사가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에서 볼 수 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로 현재에도 여러 판본이 남아 있다(土浦市立博物館, 1996). 서양의 지리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서구식 세계지도로 조선과 일본에도 전래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도(그림 22)는 1602년 북경판 『곤여만국전도』로 대형의 목판본으로 제작된 것이다. 조선의 이미지는 이 시기 전통적인 중국지도에 표현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뭉툭하게 왜곡되어 표현되었던 한반도의 형상이 실제와 가깝게 그려져 있고 팔도의 지명도 수록되어 있는 등 인식의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도 해역을 보면 먼저 바다 이름을 ‘대명해’로 표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바다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의 태평양 동부에 ‘대동양’이라 하고 일본 동쪽의 바다를 ‘소동양’이라 했다. 제



그림 22. 곤여만국전도의 이어도 해역(일본 대학교 소장)



그림 23. 곤여전도의 이어도 해역(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주도는 ‘고탐라’라고 하고 옆에 ‘제주’라고 표기했다. 대마도가 크게 그려져 있고 아래로는 일본의 오도(五島)열도, 그 남쪽으로는 소유구와 대유구가 그려져 있다. 이 시기에도 대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중국 해안을 따라 섬들이 그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지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곤여전도』(그림 23)는 1674년 선교사 페르비스트가 간행한 지도로 양반구도의 형태로 되어 있다. 조선의 형태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보다 퇴보된 느낌을 준다. 끝이 뾰족한 반도의 형상으로 반도의 남쪽 해안에는 제주도로 보이는 섬이 그려져 있다. 이어도 해역에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달리 ‘대청해(大清海)’라 표기되어 있다. 청대에 간행된 지도이기 때문에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남쪽에는 유구국 대신에 대만이 그려져 있다. 중국 해안가에는 창국(昌國)과 사가명(沙加明)이 표기되어 있다.

『천하총도』(그림 24)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진신전서(摺紳全書)』에 수록된 세계지도이다. 『진신전서』는 중앙 혹은 지방으로 부임하는 신임 관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사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책이다. 지도는 『진신전서』의 천하총도를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 당시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지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직방세



그림 24. 천하총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계를 간략하게 그렸다. 조선을 반도의 형태로 약간 크게 그렸고 동남쪽 해안에는 봉마도(鳳馬島)라는 섬이 그려져 있다. 일본은 그려져 있지 않다. 이어도 해역에는 대유구와 소유구가 그려져 있고 대만도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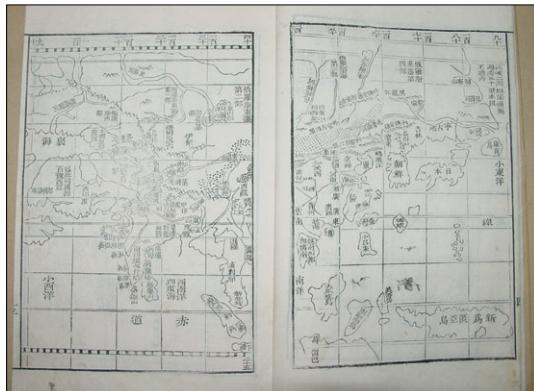


그림 25. 해국도지의 아시아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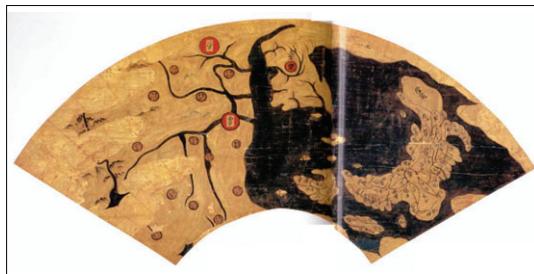


그림 26.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녔던 세계지도 부채(大阪城 天守閣 소장)

히 제위치에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쪽 해안에는 창국도(昌國島), 주산도(舟山島), 승명도(崇明島) 등의 주요 섬이 그려져 있다.

1842년 위원이 간행한 『해국도지(海國圖志)』의 아시아 지도(그림 26)에서도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윤곽이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서구식 세계지도에서처럼 실제 모습에 가깝게 표현되고 있다. 어어도 해역에는 동쪽으로 일본과 더불어 유구, 대만 등이 그려져 있다. 중국의 해안에는 일부 섬이 그려져 있을 뿐 수록된 내용은 소략하다. 이어도 해역의 바다 명칭은 표기되지 않았고 대신에 일본 동쪽의 바다를 ‘소동양(小東洋)’으로 표기했다.

#### IV. 일본의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 1. 17세기 이전 일본 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일본 고지도에서 이어도 해역의 표현은 대부분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서 나타난다. 16세기까지 불교식 세계관에 입각한 세계지도에서는 이어도 해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어도 해역이 뚜렷하게 표현된 초기의 지도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지니고 있었던 선면일본도(扇面日本圖)(그림 26)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16세기 말 중국 조선 일본을 그린 동아시아 지도로 한국은 반도국으로 그려져 있으나 국명은 고려로 되어 있다. 제주도의 위치가 부정확하고 일본은 전통의 행기도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조선, 일본, 중국 삼국으로 둘러싸인 이어도 해역에는 바다 이름같은 것은 전혀 없고 단시 일본의 오도(五島)가 그려진 정도이다.

일본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은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의 지리지식을 접하면서 한층 진전되었다. 16세기 말 정득사(淨得寺) 소장 세계도 병풍(그림 27)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도는 일본에 현존하는 서구식 세계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된 서구식 세계지도를 기초로 제작했지만 조선과 일본 등은 새롭게 추가하여 그런 것이다. 조선은 이 시기 유럽의 세계지도와는 달리 뚜렷한 반도국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에는 유구국 등의 섬과 동남아로 이어지는 항로가 표시되어 있다.

##### 2. 18세기 이후 일본 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18세기에 들어와서는 항로지도도 제작되는데, 1748년의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朝鮮京都日本大阪西國海邊航路之圖)』(그림 28)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도는 조선과 일본, 중국의 해상로를 그린 일종의 교통지도이다.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로 조선의 윤곽은 매우 왜곡되어 있다. 특히 남해안에는 거제도만이 크게 그려져 있고 제주도는 아예 그려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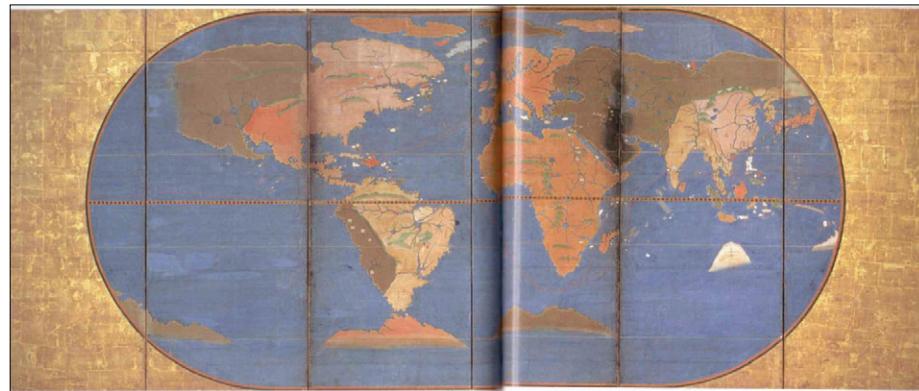


그림 27. 세계도 병풍(淨得寺 소장)



그림 28. 朝鮮京都日本大阪西國海邊航路之圖(독도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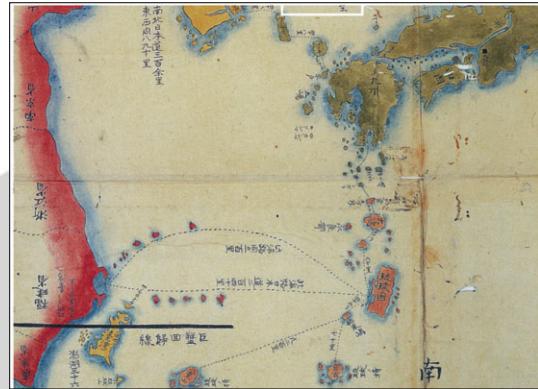


그림 29. 신정만국전도의 이어도 해역(日本國立公文書館 소장)

지 않다. ‘동서남북’의 한자로 방위를 표시하였다. 바다에는 물결무늬도 그려 넣은 것처럼 전통적인 지도 제작의 기법이 반영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에는 바다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조선에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항로와 일본의 오도에서 중국의 소주에 이르는 항로가 그려져 있는데 배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다.

일본에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한단계 제고되는 계기는 1786년 일본의 경제가인 하야시 시헤이 (林子平)가 국방적인 관점에서 간행한 『삼국통람도설』에 실려 있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그림 29)에서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일본을 중심으로 인접국인 조선국, 유구국, 하이국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 등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동시대에 제작된 ‘적수일본도

(赤水日本圖)’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변국에 대한 자료도 오래된 것들을 사용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특히 북방 지역에 대한 대외위기 인식이 지도 상에 반영되어 있고, 일본을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반도의 윤곽은 매우 과장되어 있고, 『삼국통람도설』에 실려 있는 다른 조선지도와도 차이가 있다(三好唯義 編, 1999, 40).

지도의 이어도 해역을 보면 일본의 남쪽으로 오키나와 이르는 열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고 대만과 그 주변의 섬들도 그려져 있다. 특히 해로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 일본의 리수로 표현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바다 이름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서구식 세계지도의 제작은 19세기에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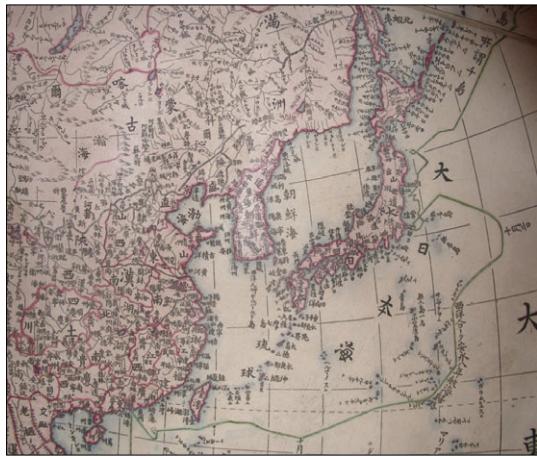


그림 30. 삼국통립여지노정전도의 이어도 해역(국회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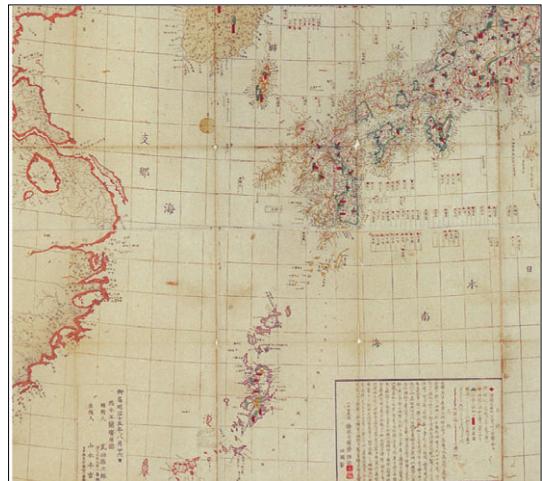


그림 31. 大日本朝鮮支那三國全圖(서울대 도서관 소장)

속되는데, 『곤여만국전도』 이후 새로운 지리지식을 수용하여 반구도 형태의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다. 1810년 제작된 다카하시 카게야스(高橋景保)의 『신정 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그림 30)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도의 원쪽 하단에는 남극, 북극 중심의 지도와 동반구, 서반구의 지도가 실려 있다. 이 지도를 축소한 지도가 막부 말기에서(幕末)에서 메이지 시기까지 제작되어 널리 유포되었다(海野一隆, 1996, 158). 지도의 형태는 태평양을 중심에 배치한 구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함경도가 길쭉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북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일본의 남쪽 연안을 대일본, 그 남쪽 태평양 지역을 대동양이라 했다. 이 지도는 당시 가장 최신의 지리정보를 사용한 최고 수준의 지도로 평가되고 있다.

지도의 이어도 해역을 보면 바다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아주 작게 그려져 있고, 서양인이 켈파르트 섬이라 부른다는 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의 남쪽으로 유구제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대만의 모습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중국 연안에는 양쯔강 하구의 승명도와 영파부에 주산군도가 그려져 있다.

일본은 서양의 지리지식을 수용하면서 지도제작에

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19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제국주의적 팽창 야욕을 지니고 주변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지도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제작된 지도가 1882년에 제작된 『대일본조선지나삼국전도(大日本朝鮮支那三國全圖)』(그림 31)이다. 이 지도는 하시모토 교쿠란(橋本玉蘭齋)의 원도를 다케다 가쓰지로(武田勝次郎)가 편집한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잘 반영되어 있는 지도로 일본과 유구국이었던 오키나와가 매우 상세하게 그려진 반면 조선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조선은 이 시기 제작되는 조선지도와 달리 윤곽이 매우 왜곡되어 있다. 대마도가 포구의 지명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조선의 제주도는 섬의 윤곽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그려져 있다. 조선의 윤곽은 북부지방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의 해안선 윤곽의 왜곡이 심하다. 이 시기 일본에서 새롭게 측량하여 제작된 조선지도 대신에 민간에서 이용되던 전통적인 조선지도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동해에는 한반도 인근의 바다를 ‘조선해(朝鮮海)’라 표기하고 그 동쪽에는 ‘일본서해(日本西海)’라고 표기되어 있다. 일본의 바다 명칭은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쪽이 남해, 혼슈 동쪽이 동해, 우리의 동해쪽



그림 32. 淸十八省輿地全圖(서울대 도서관 소장)

을 서해라 표기된 점이 다른 지도와 다른 독특한 점이다. 이미 이 시기에는 일본 열도의 남쪽 부분을 태평양이라 칭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어도 해역은 ‘지나해(支那海)’ 곧 중국해라 명명했다. 오키나와 열도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중국 절강성 연안의 주산군도가 길쭉하게 그려져 있다.

1874년에 제작된 『淸十八省輿地全圖』(그림 32)는 영국의 위리토(威爾土)가 제작한 청의 18성도를 저본으로 하고 『대청일통여지도』 등을 참고하여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경위선을 사용하여 근대적 측량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조선의 윤곽은 왜곡되어 있다. 이어도 해역은 ‘동해’로 표기되어 있다. 유구제도와 대만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고 중국 연안에는 섬들도 상세하게 표현되었다. 바다 명칭에도 독특함이 있는데 서해안을 황해로 표기하고 그 북쪽 바다를 발해로 표기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지금의 남중국해를 ‘지나해’로 표기했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정교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V. 결 론

본고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와 별개로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이 어떻게 인식되고 지도에 표현되는지를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고지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파악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고지도에서 이어도 해역은 세계지도와 동아시아지도, 일부 제주도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뚜렷한 바다 명칭을 지도에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표해록의 기록에서 볼 때, ‘백해(白海)’라고 불리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의 고지도에 표현된 내용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전해진 지리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동제국기』의 지도처럼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었고, 18세기를 거치면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서양의 지리지식이 이어도 해역의 인식을 심화시켜 주었다. 규장각 소장의 『천하도지도』와 같은 사례는 서양의 지리지식을 조선적 관점에서 다시 수정한 것이고 『해동삼국도』는 주변국으로부터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여 이

이어도 해역을 표현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세기의 『여지전도』와 같은 세계지도에서도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정교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고지도에서 표현된 이어도 해역은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해 볼 때 이역(夷域)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비해 인식의 정도가 떨어진다. 이어도 해역이 가장 자세하게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광여도』의 「동남해이도」에서도 실재의 섬과 신선사상과 관련된 가상의 섬이 혼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세계지도에는 중국 연안의 송명도나 주산군도와 같은 주요 섬 정도가 표현되며 대만의 모습도 18세기 이후에나 명확해진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는 계기는 서양선교사들의 서구식 세계지도의 간행 이후이다. 서구식 세계지도에서는 이어도 해역을 ‘대명해’ 또는 ‘대청해’로 분명하게 표기했다. 이러한 영향은 19세기 『해국도지』나 『영환지략』과 같은 양무서의 지도에 반영되었다.

셋째, 일본의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는 16세기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6세기 나가사키를 거쳐 서양의 지리지식이 유입되면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심화되어 갔다. 특히 유구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정교해졌는데, 유구국에서 중국과의 항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야시의 『삼국통람도설』의 지도는 이러한 성과가 반영된 것이었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는 근대적 측량기술과 지도제작술이 전래되면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이 훨씬 정교해졌다. 유구제도, 대만 지역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해상항로도 구체적으로 그려내었다. 다카하시의 『신정만국전도』와 같이 최신의 지리정보와 탐험성과를 지도제작에 반영하기도 하여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주었다.

본고는 한중일 삼국의 대표적인 고지도를 대상으로 이어도 해역의 인식을 살펴본 시론적 연구이다. 다양한 많은 지도를 검토하지 못한 점은 본고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어도 해역과 관련된 새로운 지도 자료를 발굴하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어도 해역 인식과 관련하여 서양

에서 제작된 지도도 함께 검토되어야 지리정보의 전달 루트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어도가 위치해 있는 해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영유권 분쟁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 지명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註

- 1)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고지도는 다음의 도록에 수록된 것들을 활용하였다. 대한지리학회·국토지리정보원, 2000, 한국의 지도;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4, 땅의 흔적, 지도 이야기;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경세원;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 三好唯義 編, 1999, 圖說 世界古地圖コレクション, 河出書房新社; 三好唯義 編, 2004, 圖說 日本古地圖コレクション, 河出書房新社; 東京國立博物館, 2003, 伊能忠敬と日本圖; 오상학, 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曹婉如 外(編), 1990, 中國古代地圖集: 戰國-元, 文物出版社, 北京; 曹婉如 外(編), 1995, 中國古代地圖集: 明代, 文物出版社, 北京; 曹婉如 外(編), 1997, 中國古代地圖集: 清代, 文物出版社, 北京.
- 2) 『해동삼국도』 제작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배우성,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한국학보 25(1), 일지사.
- 3)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오상학, 2010,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특성과 가치,” 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
- 4) 최부, 표해록, 제1권, 무신년, 윤정월 8일.
- 5) 최부, 표해록, 제1권 무신년, 윤정월 7일
- 6) 최부, 표해록, 제3권 무신년, 3월 29일.
- 7) 李衡祥, 南宦博物, 地誌條
- 8) 許穆, 眉叟記言, 記言 제48권 속집, 四方2, 殷羅志.
- 9) 章漢, 圖書編, 권29, 四海華夷總圖.
- 10) 徐兢, 高麗圖經, 제35권, 海道2.

## 文獻

- 高麗圖經, 徐兢, 亞細亞文化史 影印本 (1972).  
 海東諸國紀, 申叔舟, 朝鮮史編修會 影印本 (1933).  
 南宦博物, 李衡祥,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

- 室影印本(1979).
- 圖書編, 章漢, 목판본(1613).
- 漂海錄, 崔溥,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영인본(1978).
- 국역眉叟記言, 許穆, 민족문화추진회(1978).
- 남상준, 1988, “개화기 근대교육제도와 지리교육,” 지리 교육논집 19: 99-111.
- 대한지리학회·국토지리정보원, 2000, 한국의 지도.
- 東京國立博物館, 2003, 伊能忠敬と日本圖.
- 배우성,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한국학보 25(1): 92-125.
- 배우성, 2006, “조선후기의 異域 인식,” 조선시대사학 보 36: 145-177.
- 三好唯義編, 1999, 圖說 世界古地圖コレクション, 河出書房新社.
- 三好唯義編, 2004, 圖說 日本古地圖コレクション, 河出書房新社.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4, 땅의 흔적 지도 이야기.
- 송성대, 2010, “한·중간 이어도 海領有權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5(3): 414-429.
-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
- 오상학, 200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 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상학, 2001a, “조선후기 圓形 天下圖의 특성과 세계관,” 지리학연구 35(3): 231-247.
- 오상학, 2001b, “목판본 輿地全圖의 특징과 地理思想史的意義,” 韓國地圖學會誌, 1(1): 184-200.
- 오상학, 2003, “조선시대의 일본지도와 일본 인식,” 대한지리학회지 38(1): 32-47.
- 오상학, 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 오상학, 2010,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특성과 가치,” 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
- 汪前進·胡啓松·劉若芳, 1994, “絹本彩繪大明混一圖研究,” 中國古代地圖集: 明代, 文物出版社.
- 윤명철, 2002,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한국사학 37: 195-228.
-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경세원.
- 曹婉如外(編), 1990, 中國古代地圖集: 戰國-元, 文物出版社, 北京.
- 曹婉如外(編), 1995, 中國古代地圖集: 明代, 文物出版社, 北京.
- 曹婉如外(編), 1997, 中國古代地圖集: 清代, 文物出版社, 北京.
- 土浦市立博物館, 1996, 世界圖遊覽: 坤輿萬國全圖と東アジア.
- 海野一隆, 1996, 地圖の文化史-世界と日本-, 八坂書房.

접수 2011년 1월 15일  
최종수정 2011년 2월 21일  
게재확정 2011년 3월 1일